



QR코드를 통해  
요셉의원과 만나세요

# 요셉의원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 필리핀요셉의원 |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소식지

2025년 2월 제 **138**-1호

<http://www.josephclinic.org> | [web.facebook.com/josephclinic1987](http://web.facebook.com/josephclinic1987)

발행인 유경춘 편집 요셉의원 편집부 발행처 요셉나눔재단법인

(우) 073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100길 6 전화 : (02)2634-1760 FAX : (02)2677-5839 E-mail : info@josephclinic.org

## “더 많은 빈민층을 돕기 위한 결단입니다” 재개발 따른 본원 이전, 서울역 부근으로 검토



서울역 건너편 동자동 쪽방촌 지역(바탕 사진). 본원이 현재 위치한 영등포 쪽방지역의 재개발이 본격화함에 따라 대규모 쪽방이 밀집해 있고 노숙인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역 부근으로 이전을 모색하고 있다.

본원이 위치한 영등포 쪽방촌 지역의 공공주택개발 사업이 가시화함에 따라 본원은 올해 안에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모색하고 있다. 설립 초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모여있는 신림동에서 시작해, 10년 뒤 쪽방촌이 있는 영등포로 옮겨왔듯이 이제 더 많은 빈민층을 찾아 옮겨갈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노숙인이나 쪽방 주민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

은 서울역 부근으로, 대표적인 쪽방 밀집 지역인 용산구 동자동 지역을 이전 우선순위로 꼽고 있다.

홍근표 재단 사무총장 신부는 “올해 중반이나 하반기에는 본원 건물이 헐릴 예정이어서 어차피 이전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서울역 부근은 일단 교통이 편리해 서울 북부와 동부 그리고 지방에서 오는 환자나 자원봉사자들에게 접근성이 좋고, 무료 의료시설이 거의 없어 요셉의원이

138-1호  
주요  
소식



1

본원 이전 검토



6

재단/병원 소식



11

봉사자 코너



16

필리핀요셉의원 소식



20

국성회 소식





동자동 쪽방촌에는 일찍부터 주민 자조 모임인 '동자동 사랑방마을 주민협동회'가 구성돼 주민 교류와 소통, 상부상조의 중심이 되고 있다. 사진 시계방향으로 사랑방 간부들이 현안을 논의하는 모습, 주민협동회에서 사망한 주민의 장례 집행, 주민협동회 이태헌 초대 이사장, 동네 입원환자를 돌보는 주민.

더 많은 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영등포에 거주하며 본원을 자주 찾는 환자들도 1호선 전철을 타고 쉽게 오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재개발 지지부진해 주거 안정성 취약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는 쪽방 1,240여 개에 주민 860여 명(서울시 2023년 조사)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규모로는 국내 최대 수준이다. 서울시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4년 1,109명에서 2023년 868명으로 약 21.7%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감소는 신규 주민 유입에 비해, 고령 및 만성질환자의 사망과 타지로의 퇴거율이 더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1년부터 4년간 130명 정도가, 그리고 2024년 한 해에만도 43명이나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다. 나라 전체의 경제사회적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데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거주 환경도 주민 감소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이미 2021년도에 공공주택사업지역으로 발표됐음에도 토지 및 건물주의 민간개발 주장, 소유주와 세입자 간의 갈등, 보상문제 등 몇 가지 이해관계가 맞물려 재개발이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는 점이 주거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자동 사랑방마을 주민협동회 이태헌 초대 이사장(65)은 “재개발 얘기가 나오면서 건물주들은 건물이 언제 헐릴

지 모르니 시설을 보수할 생각을 하지 않아 거의 싸우다시피 해서 고장 난 문이나 화장실 등을 고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주민협동회 선동수 간사는 “민간 개발을 주장하는 일부 건물주들이 세입자 수를 줄이려고 전입신고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고, 쪽방 소유주가 쪽방임을 인정하지 않아 조사에서 제외되는 수도 있다”고 전했다.

### 85%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이곳 주민의 생활 형편은, 정부에서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85% 이상 되고, 나머지는 공공근로나 자활근로 등 단기 일자리를 얻거나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동자동 쪽방촌 거주자의 월평균 소득은 86만7,000원(정부 보조금이 74%), 평균 월세는 26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월세를 뺀 나머지로 한 달 생계를 꾸려가야 하니 빠듯하기만 하다.

대부분의 쪽방촌이 그렇듯, 이곳 동자동 쪽방촌도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 쪽방 하나가 대체로 1평~2평 이하로 좁고, 창문이 없거나 환기가 어렵다. 공용 화장실과 세면 시설도 부족하고, 바퀴벌레 등 해충 피해도 적지 않다는 호소다.

이런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 공공임대주택 등에 입주한 사람 가운데는 더러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 이태헌 씨는 “외부로 나가보니 동네에서 눈치도 보이고 경계하는 눈빛이 싫어서 방에만 틀어박혀 있고, 방에서 술만 많이 마시다 사망하는 분도 있다”며, “불편해도 아는 사람끼리 얼굴 보고 살자고 다시 들어오기도 한다”고 전했다.



사진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동자동 쪽방촌 골목, 동자동 쪽방 주민 자조 모임인 동자동 사랑방과 주민 협동회 사무실 및 게시판, 쪽방 건물 내부 모습.

### 주민 반 정도는 하루에 두 끼 식사

이곳 주민들 역시 혼자 사는 이들이 대부분인 데다 취사 시설이 열악해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먹는 사람은 36% 정도지만, 다른 쪽방촌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편이다. 하루 2회 식사를 하는 사람이 51.7%로 반이 좀 넘고, 하루 한 끼만 먹는 사람이 6%나 된다. 쪽방 건물 내 취사장 비율은 27%로 다른 쪽방촌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지만, 10명 중 7명은 방에서 적당히 밥을 해 먹어야 한다. 이 때문에 하루 한 끼는 서울시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동행식당을 이용하거나, 무료 급식소를 찾기도 한다. 동행식당 단가는 올해 한 끼 9,000원으로 책정됐고, 하루에 한 끼만 사용할 수 있다. 이 지역에는 현재 10여 곳이 동행식당으로 등록돼 있다.

주민들을 위해 동자동 사랑방마을 주민협동회에서 마련한 값싼 식당인 '식도락' 운영을 맡고 있는 양정애 주민협동회 부이사장은 “동행식당은 한 끼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어서 대다수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식도락'에서는 한 끼 1,000원을 받고 평일 오전 11시 20분부터 도시락 식사 45개를 제공하고 있다. 처음에

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했으나, 여러 종교단체에서 도시락 나눔과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이용객이 다소 줄었다.



동자동에 있는 크고 작은 교회들 비롯해 가톨릭 사랑평화의 집, 연탄은행, 영웅시대밴드 나눔모임 등에서 쪽방 주민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고, 인정복지재단 만나샘(중식 식사)과 이랜드복지재단 '아침에만나'(조식)가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선동수 간사는 “서울역과 동자동 지역에는 아무래도 노숙인 등 가난한 분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여러 자선단체에서 급식이나 생활지원이 활발한 편”이라고 전했다.”



동자동 쪽방촌에 있는 '가톨릭 사랑평화의 집'에서 봉사자들이 쪽방 주민들에게 배달할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다(사진/'가톨릭 사랑평화의 집').



동자동 사랑방마을 주민협동회에서 마련한 어버이날 마을 잔치(위). 사진 아래는 한기위 합동 차레 모습(사진 동자동 사랑방 제공).



서울역 부근에서는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 운영과 자선단체의 도시락 나눔이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무료급식소 '살맛나는공동체'에서 식사하는 노숙인들 (사진/매일경제).

### 주민 70%가 60대 이상

이곳 쪽방촌 주민들의 연령대는 고령층이 많아 60대 이상이 70% 정도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서울 쪽방촌 가운데 고혈압(서울시 설문 대상자 중 66.2%)과 당뇨(44.2%) 유병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쪽방촌의 특성상 불규칙한 식사와 스트레스, 겨울철 난방 부족 등 좋지 않은 생활환경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신적인 면에서도 사회적 고립, 경제적 빈곤, 열악한 주거 환경 등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우울증(35.8%)을 가진 환자도 가장 많았다.

이태헌 씨는 “가족 문제, 사회부적응, 사업 실패 등으로 남과의 소통을 꺼리는 이들도 전체의 1% 정도인 80여 명 된다”며, “이분들은 병이 들어도 병원에 잘 가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복수가 차서 사경을 헤매는데도 ‘살기 싫다’며 병원 가기를 극구 마다해 결국 쪽방에서 사망하고 말았다는 것. 이런 운운 환자나 거동 불편 환자를 위해 한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에서 방문 진료를 실시한 적도 있다.

이곳 쪽방촌 주민들은 병원 진료를 위해 15분 정도 거리



본원 환자 대기실 모습. 서울역 부근으로 이전하면 환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본원 치과 진료(위)와 방문 진료 모습. 서울역 부근으로 이전할 경우 치과 진료와 방문 진료의 수요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에 있는 후암 시장 쪽의 내과나 정형외과, 한의원을 찾아가고, 중증 질환은 국립의료원, 서울의료원, 적십자병원, 동부 및 서부시립병원 등을 이용한다. 또 쪽방상담소의 방문간호사가 주민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요양병원에 데려가기도 한다. 주민협동회도 일주일에 한두 번 큰 병원 진료를 받는 환자의 이송과 진료를 돕는다. 선동수 간사는 “암 환자나 다리가 불편한 환자들은 협동회 봉고차에 수동 휠체어를 싣고 가 동행하는 이사분들이 진료와 검사를 돕는다”고 말했다.

쪽방상담소에서도 등록 환자에 한해 서울대병원 의료봉사회와 연계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치과 진료를 실시하고, 한 달에 한두 번 한방 봉사팀이 진료를 하고 있다.

### 동자동 쪽방 주민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

동자동 쪽방촌 지역에는 현재 치과와 한방 진료 봉사 외에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병원은 없고, 서울역앞 우체국 2층의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부속의원에서 노숙인과 수급자들에게 내과와 가정의학과 진료를 하고 있다. 본원은 1차 의원이지만 내과 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정신과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등 준 종합병원급 진료과를 갖추고 있어, 이곳 쪽방촌 주민과 서울역 부근 노숙인 환자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

쪽방 주민들과 동자동 사랑방 및 쪽방상담소 역시 본원이 동자동 쪽방촌 가까이로 이전해 오는 것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태헌 씨는 “요셉의원은 다양한 진료과가 있는데다 무료 건강검진에 틀니 장착까지 가능해 많은 주민과 노숙인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반색을 했다.

본원의 2월 둘째 주 하루 환자 수는 평균 84명. 현재 영등포 쪽방 주민 수가 360명 선인 데 비해 동자동 쪽방촌



주민은 860명으로 2.4배 정도 많다. 이 비율대로라면 하루 환자 수는 202명으로 집계된다. 여기에 영등포 등 각지에서 오는 환자와 서울역 부근 노숙인까지 감안하면 환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이전에 대비해 본원은 이런 의료 수요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역량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영초 원장은 “향후 이전 계획이 확정되면 의료 수요에 맞추기 위해 진료 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의료 봉사자도 보장하는 외에 특히 방문 간호와 방문 진료를 활성화해 쪽방 주민과 노숙인의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쪽방촌 향기

### ‘환자분의 쪽지, 나에게 주어진 진정한 선물’

“한 환자분이 건네주신 작은 쪽지는 고이 접어 제 지갑 속 한 자리에 넣어두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쪽지를 보고 항상 힘을 냅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현재 저는 요셉의원에서 봉사를 시작한 지 2년 차가 되었습니다. 로컬 치과에서 봉직의로 일하며, 격주로 월요일마다 오후 6시에 퇴근한 후 요셉의원을 찾고 있습니다. 김포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길은 늘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분들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이 하루의 피로를 모두 잊게 해줍니다.

요셉의원에 도착할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시는 이충규 선배님, 박상우 선배님, 봉사자 선생님들, 그리고 팀장님 덕분에 더욱 힘이 납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환한 얼굴과 따뜻한 마음은 제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어, 봉사 활동이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요셉의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한 환자분이 건넨 작은 쪽지였습니다. 쪽지에는 “의사 선생님, 제 소원은 틀니 해서 밥 한 번 맛있게 먹는 게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꾸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소박하면서도 간절한 소망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환자분이 작은 꿈을 이루는 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더 큰 책임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쪽지는 제가 진료를 통해 얻는 가장 큰 원동력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의료봉사를 시작하게 된 데에는 가족의 영향이 컸습니다. 부모님께서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항상 나눔과 봉사의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치과의사가 된 막내아들인 저에게도 의료봉사에 뜻을 두길 바라셨습니다.

따뜻한 부모님의 마음을 이어받아 의료봉사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대학교 시절 선배였던 박상우 선배님을 통해 요셉의원을 알게 되었으며, 그 도움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원에서 봉사하면서 저는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봉직의로 일하고 있는 만큼 언제까지 요셉의원에서 의료봉사를 계속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요셉의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의료봉사에 대한 제 뜻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전문 지식을 통해 누군가의 삶에 작은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찬 삶이라 생각합니다.

환자분들이 치료를 마친 후 “의사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해 주시던 순간들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요셉의원은 단순히 치료를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라, 환자들이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치유와 평안을 얻는 쉼터 같은 곳입니다.

요셉의원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진료 이상의 시간이었습니다. 봉사와 나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존중이 무엇인지 몸소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치유와 평안을 얻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최원석

본원 치과 봉사의



## 요셉나눔재단 & 요셉의원 NEWS 2024.12~2025.1

### 2025년도 제1차 재단 정기 이사회 개최

금년도 요셉나눔재단 제1차 정기 이사회가 2월 19일 16시 30분 서울 중구 명동 서울대교구청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 고영초 병원장을 비롯한 이사 11명, 김한석·조근형 감사 등 이사회 구성원 13명이 참석했다.

참석 이사진은 2024년 결산(안)을 심의해 통과시키고,

요셉나눔재단 신규 CI 사용 건에 대해 논의했다. 요셉의원의 경우 기존 심볼마크 등을 그대로 사용키로 하고, 재단은 심볼마크 원작자와 협의해 보완하기로 했다.

재단 실무팀은 이날 회의에서 △요셉의원 서울역 이전의 건 △영등포 재개발 현황 △재단법인 운영위원회와 요셉의원 자문위원회 설치 건에 대해 보고했다.



### 내원 환자들에게 '설 나눔' 실시

본원 사회사업실에서는 새해 설을 앞두고 1월 25~26일 이틀간 쪽방 주인을 포함한 내원 환자 302명에게 설맞이 선물을 나눔했다. 이번 설 선물에는 각각 쌀 2kg과 바나나, 떡, 라면 등 식품을 위주로 꾸렸다. 김정애 사회사업팀장은 "설 한 달 전인 성탄 나눔 때 쪽방을 돌며 선물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환자 위주로 나눔을 했다"고 말하고, "4월 부활절에는 다시 쪽방 방문 나눔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민광한 수녀·황보신이 수녀 이임

지난 2020년 2월 본원에 부임해 사회사업팀장, 사회사업실장을 역임하며 환자 상담과 지원, 후원 물품 관리를 비롯해 음악치료와 영화 포럼 등 정서지원 프로그램 관리, 원목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해 온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 민광한 루이제 수녀가 소속 수도회의 인사 발령에 따라 2월 17일부로 서대문본당으로 이임했다. 또 같은 수도회 소속으로 2022년 8월 본원 약제팀에 부임해 약제팀장으로서 본원 약제실 발전에 기여해 온 황보신이 수녀(약사)도 동탄성심병원

원목실로 임지를 옮겼다.

민 수녀는 2월 13일 미사 후 가진 이임식에서 "더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며, "이제 요셉의원을 떠나 레지오 마리에 협조단원처럼 열심히 기도하며 요셉의원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민 수녀는 이어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은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생각하고 요셉의원에서 가졌던 그 마음가짐으로 하느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황보 수녀는 이임 인사말에서 "요셉의원에 와서 가장 많이 생각났던 단어가 예비하신 은총이 있었구나 하는 점이었다"고 말하고, "약사로서 처음 봉사했던 신림동 요셉의원에서 선우 원장님을 만났고, 강남성심병원에서는 약사 수녀로서 고영초 원장님을 만난 데 이어 요셉의원에서 약국 소임을 맡아 마음의 고향에 온 것 같이 기쁘고 행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보 수녀는 "배려해 주신 신부님과



이임 인사말을 하는 민광한 수녀(왼쪽)와 황보신이 수녀.



원장님, 사랑으로 감싸주신 직원과 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석별의 마음을 전했다.

### 안분이 수녀 · 강현진 수녀 부임

본원을 떠난 두 분 수녀 후임으로 2월 17일 안분이(로벨도) 수녀와 강현진(가우덴시아) 수녀가 새로 부임해, 각각 자원봉사실장과 영성구현실장으로 일하게 됐다.

안분이 로벨도 자원봉사실장 수녀는 1980년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에 입회해 서울과 지방에서 번갈아 소임을 맡으며, 주로 특수 사목 업무를 많이 했다. 청년성서모임과 아버지 성서모임사도직을 거쳐 부산 영도 달동네에서 5년 6개월간 ‘해돋이 공부방’을 중심으로 남녀노소 빈민층과 함께 하며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지냈다. 임상사목을 공부한 뒤에는 자연스럽게 병원 원목 소임을 맡게 돼, 서울성모 병원과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8년 정도 원목수녀로 일했다.

안 수녀는 “한창 때 열심히 일하면서 달동네와 병원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체화시켰다고 할까요, 요셉의원에 파견되어 앞으로의 시간들을 선우경식 선생님의 뜻을 담은 이념 구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강현진 가우덴시아 영성구현실장 수녀는 1982년 같은 수도회에 입회해 1985년 2월 첫 서원 후 서울대교구 옥수동성당에서 첫 소임을 맡은



새로 부임한 안분이 로벨도 자원봉사실장 수녀(왼쪽)와 강현진 가우덴시아 영성구현실장 수녀.

후 서울, 부산, 원주교구, 미주 시애틀 성당등 13개 본당에서 사목했다. 또 본당 이외에 소속 수녀회의 재속회원 모임인 성모자매회 영성 사목을 5년 동안 담당하고, 인천교구 가천대 길병원 원목, 부산교구 장애 영유아 보육시설인 ‘아이들의 집’에서 소임을 맡기도 했다.

여러 본당과 특수 사목을 경험한 강 수녀는, 이번 요셉의원 소임을 통해 환자들에게도 마음을 기울이는 한편, 직원들의 영성 함양을 도울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찾아가서 진료하고, 예방 위해 건강검진 활성화” 건강검진 결과, 쪽방 주민 건강 일반인에 비해 크게 취약



본원 의료사업실이 노숙인과 쪽방 주민 등 68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일반인에 비해 간 기능과 갑상선 기능 등이 크게 떨어지고, 이미 암이 진행되는 등 암 유병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원 의료사업실이 최근 7개월간(2024.06~2025.01) 본원을 처음 방문했거나 재상담 및 치과 진료 대상자 등 68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일반인에 비해 간 기능과 갑상선 기능 등이 크게 떨어지고, 통풍 환자 비율도 높는데다 이미 암이 진행되는 등 암 유병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건강검진 대상자들은 ▲건강검진 프로그램 시행 인원 168명 ▲치과 진료 대상자 중 감염 질환 여부 검사자 181명 ▲요셉의원 신환 등록 및 재상담 인원 337명 등 모두 686명이다.

이들 가운데 혈액검사 결과에서 정상치보다 높은 이상 수치를 보인 비율은 ▲알코올성 간 장애(GGT) 21.2% ▲통풍

21.1% ▲갑상선 기능 이상 15.2% ▲대장암 및 소화기암 의심(CEA) 14.9% ▲매독 7.4% ▲전립선암 및 전립선 비대 의심 7.1% ▲난소암 의심 6.9% ▲췌장암, 췌장염 의심 6.2% ▲간암, 간경화 의심 5.6% ▲B형 간염 4.6% ▲C형 간염 1.6% ▲HIV(후천성 면역결핍증) 0.44% 순이었다. <표1 참조>

고영초 원장은 “이 분석 수치를 보면 쪽방 주민과 노숙인, 가난 혹은 본인의 무관심으로 정상적인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고 본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일반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암 및 각종 질환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하고, “건강 검진을 받을 기회가 적거나 본인이 기피해 환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병이



본원 임상검사실에서 혈액검사를 위해 채혈하는 모습.



본원 영상의학실에서 촬영한 흉부 엑스선 사진을 살펴보고 있다.

악화돼 발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 기간 동안 본원에서 발견된 암 환자나 중증 질환 조치 사례 일부를 소개하면 <표 2>와 같다. 본원에서는 일상적인 진료나 건강검진을 통해 암 같은 주요 질환이 발견된 환자는 외부에 정밀 검진을 의뢰하는 한편, 안전망 병원 등에서 수술 치료를 받도록 돕고 있다.

### 질병 악화 예방 위해 방문진료 적극 실시

본원에서는 또한 가난하고 소외된 환자들이 병을 키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거동이 불편한 쪽방 거주자 ▲병원을 자주 이용할 기회가 없어서 자신의 건강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람 ▲몸에 이상 증상은 느끼고 있으나 진료비 걱정으로 병원을 찾지 못하는 사람 등 여러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기다리지 않고 찾아나서는 적극

적인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김재근 본원 의료사업실장은 “먼저 방문진료를 통해 쪽방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 정확한 건강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분과, 매주 목요일 무료급식을 이용하러 오시는 분들 중 요셉의원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분들을 우선 대상으로 흉부 엑스선 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치과 검진(스케일링 포함)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혈액검사는 당뇨 검사, 간기능, 신장기능, 고지혈증, 통풍검사, 빈혈, 염증 검사, 암표지자검사, 갑상선검사(여자환자) 등 종합검진 수준의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검사를 시행한 다음에는 본원 고영초 원장이 환자를 직접 대면해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1차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검사(CT, MRI, 내시경, 초음파 등)를 실시한다. 또 입원 치료

<표 1> 각 검사별 시행 인원과, 정상치를 넘는 환자의 인원 및 비율

검사 항목	시행 건수	정상치보다 높은 결과수	이상 비율 (유병률)	검사 항목	시행 건수	정상치보다 높은 결과수	이상 비율 (유병률)
AFP(간암,간경화)	195	5.6 %	11	CEA(대장암, 소화기암)	194	29	14.9 %
CA19-9(췌장암, 췌장염)	193	12	6.2 %	PSA(전립선암, 전립선 비대)	197	14	7.1 %
CA125(난소암)	29	2	6.9 %	HIV	677	3	0.44 %
B형간염	681	31	4.6 %	C형간염	679	11	1.6 %
갑상선기능검사	66	10	15.2 %	Uric acid(통풍)	559	118	21.1 %
GGT(알코올성 간 장애)	751	159	21.2 %	매독	678	기왕증 50	7.4 %
					치료 필요(13) : 1.9 %		
					치료 시행(4) : 0.6 %		



〈표 2〉 본원 건강검진을 통한 주요 질병 발견 및 조치 사례(일부)

환자	나이	거주지	진단	조치 사항
이**	64	의정부	본원 건진 암표지자 수치 상승해 정밀검사 결과 간암 4기 판정	보라매병원 전원, 말소 주민증 복원, 검사 및 진료비 요셉의원 지원
정**	64	-	본원 건진 결과 전립선 암표지자 상승, 추가 정밀검사 결과 전립선암 판정	입원 수술 지원, 주민센터 연계하여 1종 수급 지원
박**	65	-	본원 건진 결과 암표지자 상승해 정밀검사 결과 간암 진단. 한 달 이상 추적 검사 결과, 췌장·담낭 이상 발견	치료 중
허**	77	-	본원 건진 결과 간·췌장암 수치 높고, 간경화 진행 확인	동부시립병원 전원(진료비 요셉의원 부담)
캐서**	49	파키스탄	본원 건진 결과 암표지자와 간 기능검사 수치 상승 확인	성가복지병원 전원 후 장애병원에서 선종, 분국 송환 예정
김**	82	영등포	본원 엑스선 검사에서 폐암 확인.	주민센터 연계, 요양병원 입원
윤**	72	-	본원 엑스선 검사상 폐 이상 발견, 본원 협력병원에 의뢰해 CT 촬영 결과, 폐암 의심	필립메디칼에 CT 의뢰 후 상급병원 전원
신**	69	-	본원 엑스선 검사 후 결핵 의심, 추가 시행 객담 검사에서 결핵균 검출	신고 후 종로구 보건소로 치료 이관
김**	53	-	본원 건진에서 폐농양 발견	보라매병원으로 응급 전원(주민센터 긴급지원 신청)
김**	54	-	본원 건진에서 HIV양성 확인	치료 가능한 서울시 지원 안전망 병원으로 전원
박**	46	용산구	본원 치과 치료 전 감염증 검사에서 HIV 양성 확인.	
박**	57	-	본원 건진에서 HIV 양성 확인	



채혈한 혈액을 임상 생화학 분석기로 분석하고 있다.



고영초 원장이 쪽방 환자를 찾아가 방문 진료하는 모습.

나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서울시 지원 5개 안전망병원이나 영등포 인근의 본원 협력 병원으로 전원해 치료하고, 협력 병원에서 발생하는 치료비는 전액 본원에서 후불 지급하고 있다.

종합검진프로그램뿐 아니라 몇 년만에 본원에 내원한 환자, 기본검사를 받은 지 1년이 경과한 환자들에게도 기본 검사(암표지자검사, 갑상선검사 제외)를 실시하고, 본원 치과 치료를 받을 예정인 환자들에게는 감염 질환 검사(당

뇨검사 포함)를 통해 다양한 환자 중심의 검진프로그램도 시행 중이다.

고영초 원장은 “본원을 이용하는 환자분들은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문제로 자신의 건강을 세심하게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암 등을 조기 발견하기가 힘들다”며, “환자 분들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본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종합검진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필요한 검사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요셉의원 무료 건강검진 안내

본원에서는 진료비가 없는 가난한 소외계층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만성 질환이나 악성 질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강 회복에 필요한 추가의료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 + 건강검진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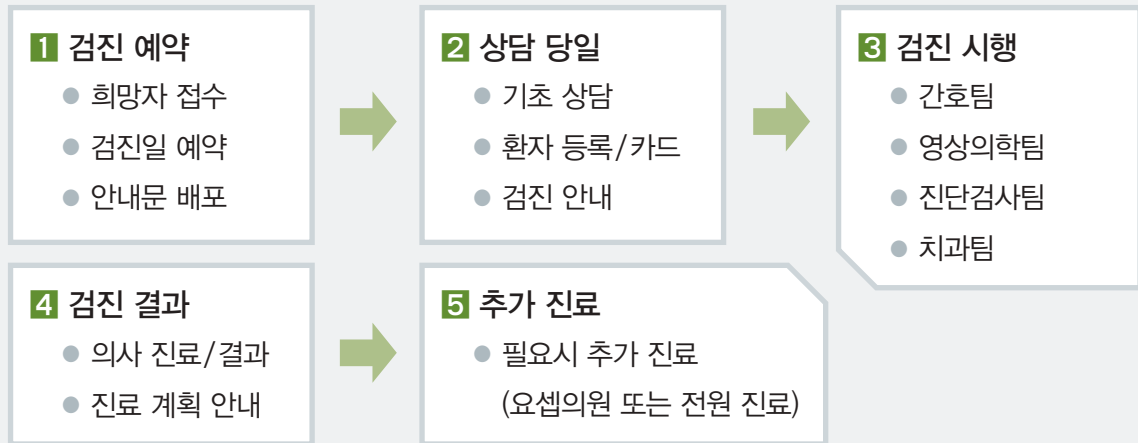
- 쪽방주민 및 노숙인
- 무보험, 건강보험 체납자
- 난민,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중  
입국 3개월 이상일 경우
- 이외 의료 사각지대의 환자

### + 건강검진 시간

- 요셉의원 정기 진료시간 내
  - 낮진료 오후 1시~5시
  - 저녁진료 오후 7시~9시



### + 건강검진 절차



#### 1 검진 신청일(목요일식사 나눔시)

진료지원팀 → 검진예약일 지정 → 검진안내 접수증 수령

#### 2 검진 시행일(예약 당일)

진료지원팀 → 기초 상담 시행 \_ 건강검진 실시 → 진료카드 및 검사결과 내원 안내문 수령

#### 3 검진 결과 확인

진료지원팀 → 건강검진과 접수 후 진료



## 봉사자 코너

### 금요일 낮 상담 봉사하는 강순희 봉사자

#### “상황이 바뀌어도 요셉의원 봉사는 꼭 나올 겁니다”



봉사 나오는 데 시간은 많이 소요되지만 그만큼 보람을 느낀다고 말하는 강순희 봉사자.

본원에 처음 오는 환자들은 사회사업팀에서 상담을 한다. 먼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를 확인해, 가입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원을 찾았다면 어떤 사정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지를 살펴본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 부담으로 내야 해서 일반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료보험 체납자분들은 본원 같은 무료 병원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원에는 이런 건강보험료 체납자나 신용불량자,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 의료수급자 등이 주로 찾아온다. 가끔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도 있다. 본원 사회사업팀에서 매주 금요일 낮에 상담 봉사를 하는 강순희 봉사자(58)는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상담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본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상담하다 보면 가슴 아픈 사연을 지닌 분들도 적지 않아요. 사정도 어려운데 특히 몸까지 아프면 더 서러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과 지지를 보내는 게 요셉의원과 저희 봉사자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집이 멀지만 봉사는 보람 있고 소중”

지난해 6월부터 상담 업무를 맡은 강 봉사자는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란 40대 후반부터 자신의 일을 시작해 10여년을 일하고 퇴직한 뒤 본원을 소개받았다.

“아는 분이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걸 알고 봉사를 해보라며 요셉의원 사회사업팀을 소개해 줬습니다. 집이 김포라서 영등포 요셉의원에서 낮 근무만 하는데도 거의 하루 시간을 내야 하지만, 사정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그만큼 보람 있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상담 대상자는 쪽방 주민과 노숙인, 쉼터 시설 거주자와 외국인 노동자 등 다양하다. 상담을 마치고 진료 대상으로 결정되면 바로 진료카드를 발급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보험이 없는 외국인이 오면 영어로 만든 질문지를 드리기도 하지만, 영어를 잘 모르면 스마트폰 통역기를 쓰기도 합니다. 다급해서 오는 분들은 아예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어디가 어떻게 아파서 이런 상태다’라는 것을 써가지고 오기도 해요.”

말은 잘 안 통해도 뜻은 어떻게든 전달이 된다. 이런 외국인 환자나 국내 노숙인 환자들이 가끔 병원 진료받고 가면서 인사를 건넬 때는 마음이 훈훈하다.

#### “서류상'의 이유로 도움 못 받는 분 안타까워”

강 봉사자는 주로 본원에 처음 오는 환자들을 상담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물어야 하는 항목이 있으나, 환자에 따라 꺼내놓기 싫어하는 내용도 있어 응대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가족관계, 예를 들면 별거나 이혼을 한 상태이거나, 현재 별다른 직업이 없는데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외국인들은 쉽게 대답하는 데 비해 국내인들은 더러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존심과 연결되는 것 같아서 싫어하시면 깊이 묻지는 않죠.”

기억 나는 환자 중 한 명은 70대 고령자로, 평생을 직장인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뒤 그만 사기를 당해 퇴직금 등을 몽땅 날렸다고 한다. 이 일로 결국 이혼을 하고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다. 외국으로 유학을 보낸 자녀들은 그곳에 정착해 살고 있어 부모를 돕기가 쉽지 않고,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 연락도 안 했다. 거리에서 노숙하던 그는 노숙인 시설 운영자들의 눈에 띄어 시설에 입소하게 됐고, 시



통역자와 함께 온 외국인 근로자와 상담하는 모습.

설에서 본원에 건강진단을 의뢰했다.

“이분을 상담해 보니 그나마 건강한 편이어서 다행이지만, 나이가 80~90대가 되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서더군요. 수급비나 요양비가 나오려면 친족이 아무도 없어야 하는데, 호적상으로 가족이 있는 것으로 나오니 정부 도움을 받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요.”

### “돈보다 일이 필요해요”

‘돈보다 일이 필요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그는 사회복지사에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등 여러 자격증을 갖고 있다. 그는 이런 자격증을 자녀들이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면서 취득했다고 한다.

“엄마가 공부하는 모습이 애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돌아오면 항상 엄마가 집에 있어야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 아이들이 한창 공부할 때는 취업하지 않았고, 어느 정도 큰 다움에 제 일을 시작했어요.”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것을 싫어한다”는 강 봉사자는 현재 자신에게 맞고 보람 있는 일을 찾기를 원하고 있다. 그는 “일을 갖게 돼도 저녁 시간을 이용해 요셉의원 봉사는 꼭 나오고 싶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

## 환자스토리



### 평생 치아 때문에 고생하다 부분 틀니 장착한 임규진 환자

## “어려운 사람 돕는 요셉의원과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그는 “생각해보면 결혼을 안 하고 가정을 갖지 않은 것도 술

지난해 12월 본원 치과에서 부분 틀니를 장착한 임규진 환자(64). 임 씨는 “이가 여덟 개밖에 남아있지 않아 음식을 씹으려고 하면 불편하고 가끔 신경까지 건드려 엄청 아플 때도 있었으나, 틀니를 장착하니 음식을 먹기가 훨씬 수월해졌다”며 고마워했다.

“나이가 들었어도 치과 소리만 들으면 무서웠는데, 요셉 의원에서 아주 편하게 잘 치료해 주셨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펴주시는 의료진과 도와주신 후원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임 씨는 나이에 비해 치아가 일찍 상한 원인이 술을 좋아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젊어서 영등포 인력사무실에서 10년, 경량 철골을 이용해 천정과 칸막이 등을 만드는 일을 20년 정도 한 그는, 월급 타면 돈 모을 생각은 안 하고 주로 술친구들과 어울렸다는 것.

“30대부터 이가 아팠어요. 술 먹고 양치질 안 하고 자고, 그러다 보니 충치가 생기는데도 치과에서 치료할 생각을 하지 않아 결국 이빨이 빠지게 됐죠. 이가 시원찮으니, 사람이 뭔가 없어 보이고 받음도 시원찮고 모든 것이 원활치가 않았어요.”

을 가까이하고 돈을 못 모은 한 이유 중 하나인 것 같다”며, “이상하게 여성과는 인연이 없었던 것 같다”고 술회했다. 그는 청장년 시절 동거도 몇 번 했었다고 밝혔다. 언젠가는 아이가 있는 연상의 여인과의도 함께 살았으나 술 먹지 말라는 잔소리도 많이 듣고 하다 ‘ 좋게’ 헤어지고 말았다. 이 여성과는 지금도 가끔 연락하고 있다.

시골에서 외동으로 태어난 임 씨는 부모가 이혼한 뒤 6세 때부터 큰아버지 집에서 자랐다. 중학교 때 인천에 사는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으나 부자간 정은 그리 깊지 않았다. 고교 졸업 후 군에 입대했다 전역한 뒤 친구의 소개로 평택의 대기업에 입사해 7년을 근무했다. 노조 문제 등으로 퇴사하고 무작정 상경해 정착한 곳이 이곳 영등포.

“그동안 몸도 함께 쓰는 일을 하다 보니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가 심해져서 때로는 걷기조차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재작년에 주민센터에 수급 신청을 해서 의료비와 주거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큰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으라는 말에 그는 ‘주



변에 수술받고 크게 좋아진 사례도 없는 것 같고, 돈도 없는 데다 간병할 가족도 없다'며 마다했다. 예전에는 보통 하루에 소주 서너 병은 마셨으나 2년 전에 완전히 끊었다는 그는 나이가 60 중반에 접어들면서 젊었을 때에 비해 생각이 좀 정리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살면서 굳이 거짓말 할 필요가 없더군요. 오히려 진심

으로 다가가면 도움을 얻게 돼요.”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서울 와서 고생하며 살았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는 그는, “앞으로 건강하게 살자는 생각으로 밖에 나가 한 걸음이라도 더 걷고, 가까운 수영장을 찾아 열심히 운동도 해볼 생각”이라며 밝은 미소를 머금었다. +

## 후원의 손길



다면, 아니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이 책을 꼭 읽어보기 바란다...”고 일독을 권했다.

미대를 나와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했던 문 후원자는 책 읽기와 시를 좋아해 직접 시 쓰기를 배우기도 했다. 그

### ‘의사 선우경식’ 읽고 감명받아 기부한 문재호 후원자

## “절에 다니지만 ‘자비’는 종교 공통의 언어지요”



‘책마당 도서관’ 성탄 이벤트에 참여한 문재호 후원자 부부.

본원 초대 원장의 전기 ‘의사 선우경식’을 읽고 감명받아 지난해 6월부터 기부금을 보내기 시작했다는 문재호 후원자(68)는 1월 7일, “그 책을 읽고 바로

러다 가까이 있는 책마당 도서관을 소개받아 이곳에서 독서 모임도 하고 있는 중.

“열심하신 도서관장님을 포함해 봉사자 12명이 오전 오후 순번을 정해서 일하고 있는데, 도서관이 너무 예쁘고 잘 꾸며져 있어서 많은 분이 즐겨 찾고 있어요. 저도 봉사를 하고 싶지만 이것저것 배우는 게 있어서 저 대신 남편이 일주일에 한 번 봉사하고 있습니다.”

70 가까운 나이인데도 자기 계발에 힘을 쏟는 문 후원자는 그 나이에는 드물게 블로그 운영에도 열심이다. 블로그를 하게 된 계기가 재미있다.

다음 날 요셉의원에 전화했다”며, “선우 선생님의 이웃 사랑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어 작지만, 후원에 동참하고, 올해 초에 블로그에도 소개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솔직히 의사라고 하면 미래가 보장되고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접고 봉사를 하면서 평생을 사신 그 삶이 너무 고귀하고, 저 또한 남을 위해 살지 못했다는 반성의 마음도 들고 해서 요셉의원에서 봉사는 못하는 대신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 8단지 아파트 ‘책마당 도서관’을 즐겨 찾고 있다는 문 후원자는 이 곳에서 선우 선생 전기를 읽고, 도서관 회지와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ID: 프락 moon95020)에 감동적이면서 진솔하게 자신의 소감을 기록했다.

그는 블로그에 “...이 책을 읽으며 매 순간 놀라고 감탄하며 눈시울을 적셨다. 그의 숭고한 삶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과 함께, 그가 ‘우리’를 마음에 둘 때 나는 ‘나’만을 위해 살아온 건 아닌지?”하고 반문하며, “당신이 시간이 허락된

“손주를 얻은 뒤 자주 사진을 찍다 보니 비공개로 인스타그램을 했었죠. 그러다 지방의 자치단체에서 열흘 살이, 한달살이할 사람을 뽑으면서 블로그 팔로워가 많은 이에게 우선권을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딸에게 도움을 받다 나중에는 제가 직접 블로그를 운영하게 됐어요.”

그의 블로그에는 ‘나의 삶을 뒤돌아보게 한 책 <의사 선우경식> 소개와 함께 ‘제주살이하며 읽기 좋은 책’, ‘30주년 박진영 콘서트를 다녀와서’, ‘나태주 시인 이야기’ 등과 같이 일상의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여행, 맛집 같은 잔잔한 생활정보가 담겨있다.

불교 신자인 남편과 함께 자주 절에 가지만, 종교로 편을 가르는 것에는 반대한다. 그는 “제대로 된 종교라면 마음의 평화를 지향하고 이웃에 대한 자비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한 선우 선생의 삶을 그린 책이 널리 알려지고 읽히기를 염원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



## 후원 및 기증현황

###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분 (2024년 12월~2025년 1월)



#### ■ 요셉나눔재단

- 강동호 ● 강미옥 ● 강보라 ● 강이준 ● 강태호 ● 강현승 ● 강혜원 ● 강희정 ● 고병석 ● 고은서 ● 곽경훈 ● 권미경 ● 권병규 ● 권석윤 ● 권오상 ● 권준정 ● 김가은 ● 김경희 ● 김동휘 ● 김두희 ● 김미희 ● 김병학 ● 김상민 ● 김선영 ● 김세현 ● 김수현 ● 김시내 ● 김연경 ● 김연수 ● 김영복 ● 김영석 ● 김용운 ● 김원호 ● 김유숙 ● 김유정 ● 김유정 ● 김은정 ● 김임정 ● 김자경 ● 김재우 ● 김재윤 ● 김재은 ● 김정은 ● 김정자 ● 김정태 ● 김정호 ● 김종철 ● 김준모 ● 김지아 ● 김진섭 ● 김창경 ● 김태경 ● 김태현 ● 김해숙 ● 김혜민 ● 김화숙 ● 김희선 ● 나병익 ● 나영균 ● 남건우 ● 남수민 ● 남희자 ● 류혜원 ● 류효영 ● 문경숙 ● 문선희 ● 문재원 ● 문주리 ● 민명동 ● 박근영 ● 박기민 ● 박다슬 ● 박서인 ● 박선영 ● 박어진 ● 박연규 ● 박영남 ● 박온빛 ● 박유나 ● 박은경 ● 박장동 ● 박정은 ● 박진옥 ● 박진호 ● 박해인 ● 박행자 ● 박희원 ● 배성민 ● 배승효 ● 백영옥 ● 변제익 ● 서용수 ● 서유스티노 ● 서은영 ● 서주현 ● 서현미 ● 석보현 ● 성 도 ● 손선아 ● 손태진 ● 손혜인 ● 송경훈 ● 송구순 ● 송수현 ● 송인후 ● 송재민 ● 송지영 ● 송희영 ● 신민호 ● 신연순 ● 신용관야고보 ● 신종은 ● 심미옥 ● 심옥란 ● 심윤화 ● 안세정 ● 안수민 ● 안장미 ● 안태환 ● 안혜정 ● 안희진 ● 양규원 ● 오미영 ● 오성대 ● 오승일 ● 오윤주 ● 오현준 ● 왕원동대건안드레아 ● 우재경 ● 원명심 ● 유명훈 ● 유주현 ● 유지현 ● 유지호 ● 유현정 ● 유혜란 ● 윤기철 ● 윤다혜 ● 윤선아 ● 윤선오 ● 윤소영 ● 윤승훈 ● 윤영자 ● 윤예주 ● 윤진미 ● 윤철의 ● 이나래 ● 이대근 ● 이동진 ● 이동태 ● 이동현 ● 이병주 ● 이삼권가브리엘비오 ● 이상석 ● 이상준 ● 이새롬 ● 이서영라파엘라 ● 이석길 ● 이선구 ● 이선주 ● 이수찬 ● 이승희 ● 이애경 ● 이양규 ● 이유영 ● 이유정 ● 이윤주 ● 이은숙 ● 이자영 ● 이정섭 ● 이정수 ● 이지현 ● 이진영 ● 이진유 ● 이진희 ● 이창재 ● 이채영 ● 이춘재 ● 이혜민 ● 이혜영 ● 이희영 ● 임경자 ● 임도현 ● 임미란 ● 임수경 ● 임정혜 ● 임호식 ● 장금희 ● 장서희 ● 장영균 ● 장은미 ● 장은하 ● 장주현 ● 장중호 ● 장진석 ● 전윤주 ● 정경희 ● 정두성 ● 정명빈 ● 정상용 ● 정영선 ● 정영한 ● 정용기 ● 정정열 ● 정지영 ● 정찬휘 ● 정충국 ● 조경숙 ● 조경인 ● 조민균 ● 조양숙 ● 조영미 ● 조영수 ● 조옥진 ● 조용근요셉 ● 조용만 ● 조우식 ● 조용정 ● 조은아 ● 조은주아네스 ● 조지현 ● 조현정 ● 조현준 ● 진원재 ● 차소영 ● 차옥길 ● 채유경 ● 채은정 ● 천병규 ● 청 라 ● 최나현 ● 최미경마리아 ● 최민정 ● 최서희 ● 최수병 ● 최승훈 ● 최애신 ● 최영길 ● 최유현 ● 최윤정 ● 최지영 ● 최효석 ● 탁옥엽 ● 하정한 ● 하현주 ● 한나영울리안나 ● 한도윤 ● 한창리 ● 홍세영 ● 홍세정 ● 홍승효 ● 홍지유 ● 황보근 ● 황의천 ● 황희경

#### ■ 요셉의원

- 김지울 ● 김현주 ● 김형필 ● 남창식 ● 류시환 ● 민선양 ● 박현경 ● 서비오 ● 서영관 ● 세연 · 하영 ● 손기민 ● 안형근 ● 어진이네 ● 우도근 ● 이경란 ● 이기복 ● 이동호 ● 이수현 ● 이엘리아 ● 이은영 ● 이이석 ● 임선민 ● 정요안 ● 정유철 ● 정인성 ● 정정윤 ● 정준호 ● 조명화 ● 주영노 ● 주재현 ● 지에 · 재호 · 옥호 ● 진성훈 ● 최원석 ● 최유경 ● 최지원 ● 하현준 ● 하현주

###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단체 (2024년 12월~2025년 1월)



#### ■ 요셉나눔재단

- (재)천주교서울대교구 ● MATSUYAMAK ● 가회동성당연령회 ● 김동롤팬 ● 누네안과병원 ● 독산1동성당 ● 메리스바이오주식회사 ● 문래동성당 ● 법무법인인사이트 ● 서가회 ● 서울대교구성소국(예비신학생) ● 서울오페라양상블 ● 세종로성당 ● 시흥동성당 ● 아산신정호마라톤 ● 약사임당과약동이님들 ● 영등포구간호사회 ● 푸르름 ● 한국청과(주) ● 허브공인증개사사무소

#### ■ 요셉의원

- (주)동부플래니처 ● (주)성산제관 ● (주)시원홀딩스 ● (주)오렌지9네트웍스 ● (주)첨암에이앤씨 ● (주)한길엔지니어링 ● (주)핵사이노힐 ● 경인전자(주) ● 미광교회 여전도회 ● 미세스문(주) ● 방학동성당 ● 법무법인 가온 ● 빅피쉬골프 ● 세무법인 이치 ● 에스티엔씨더블유 ● 유한회사 경암 ● 재단법인 새암조감제 ● 정암상사 ● 제이디플러스(주) ● (주)경일엔텍 ● (주)더에이치골프 ● (주)시담



- (주)제이아이씨글로벌 ●(주)터크코리아 ●(주)트렉시 ●(주)퍼터갤러리
- 케이와이케이 ●코린대청 ●클린타투의원

### + 주·부식을 보내주신 분 (2024년 12월~2025년 1월)



- 강신걸·김선화(피스 오브 헤븐) : 빵 62봉지 ●김승규 : 전복 1상자 ●김유순 : 고구마 1상자 ●대방동성당 : 라면(육개장 30상자, 안성탕면 25상자)
- 대방동성당 최주용 데레사 : 쌀 100kg ●문재용 : 밀감 2상자 ●박진경 : 케익 3통 ●사회복지법인 행복공학재단(김진석) : 쌀 20kg ●상영재단 : 쌀 500kg ●서미자 세레나 : 감귤 3상자 ●양춘하 : 쌀 400kg, 라면(10상자)
- 우리들베이커리 : 빵 2상자 ●윤현지 : 카스텔라 200개 ●이연주 치과 : 배 1상자 ●이옥정(막달레나공동체) : 감귤 1상자 ●이희영(막달레나공동체) : 롤케익 1상자 ●익명 : 쌀 40kg ●(주)아침농산잡곡 : 쌀 20kg ●한국거래소(국민행복재단) : 김치 50kg ●홍은주 : 쌀 20kg

### + 의류·신발을 보내주신 분(2024년 12월~2025년 1월)



- 강주란 : 양말 100족 ●김건해 · 안 \* \* : 여성 속옷 1상자 ●김한수 : 동내의(상, 하) 2벌 ●박 \* 경(부산) : 의류 2상자 ●박은경 : 의류 1상자 ●보라매병원 시민공감응급실 : 양말 48족 ●서 \* 력(파주시) : 의류 패션잡화 2상자 ●서 \* 희(강북구) : 의류잡화 2상자 ●신 \* 진(서초구) : 의류 1상자 ●엄승 \* : 의류 1상자 ●월드멧 : 의류 1상자 ●유 \* 재(대전) : 의류 6상자 ●유현아 : 패딩점퍼 5벌 ●윤지상 : 의류 3상자 ●이 \* 숙(포항시) : 의류 1상자 ●이 \* 은(서초구) : 의류 1상자 ●익명 : 양말 10족, 옷 1상자 ●장 \* \*(용인시) : 의류 1상자 ●장 \* 기(인천) : 의류 1상자 ●정영미 미카엘라 : 의류 1상자 ●정유섭 : 보온 동내의 2벌 ●주경수 : 의류 패션잡화 1상자 ●청담동성당 : 남녀 내의 101벌 ●최 \* 연 : 양말 3족 ●하마리아 : 담요 1장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사제 일동 : 과일 2상자 ●홍 \* 화 : 패딩점퍼 3점 ●환희 : 의류 1상자

### + 의료가·의약품을 보내주신 분(2024년 12월~2025년 1월)



- 샬레시오 수도원 : 부루펜 400mg 외 7건 ●오시영 약사 : 오메가징코정
- 온누리약국복지회 : 온감파스의 4건 ●제일한방 : 한방파프 ●하나제약 : 가바펜틴 100mg 외 32건

### + 집기·소모품을 보내주신 분(2024년 12월~2025년 1월)



- 김재학 : 마스크94(285매), 손소독제 140개 ●김하 \* (구로구) : 잡화 1상자 ●류 \* 영 : 생활품 1상자 ●보라매병원 시민공감응급실 : KF-94마스크 320매 ●정찬용(동보문방고) : 잡화 1상자 ●조 \* 희(부산) : 잡화 1상자 ●하마리아 : 삼푸 1상자

### 직원 및 봉사자 동정

#### + 재단 인사 발령



- 총괄본부장(임원급) : 정운식(1월 1일 부)

#### + 요셉의원 인사 발령

- 영성구현실 실장 : 강현진
- 자원봉사실 실장 : 안분이  
봉사자관리팀장 : 이승덕
- 의료사업실  
방문진료팀장 : 김경미, 팀원 : 조영이  
진료지원팀장 : 김정애  
원무팀장 : 김정순  
약제팀장 : 하현주, 팀원 : 홍은주
- 총무실 안내담당 : 김홍희 이태구  
(영선담당 겸임)  
도서관장 : 황 돈(이상 2월 18일 부)

#### + 새로 봉사 나오신 분

- 의 사 : 신규호(정형외과)  
양정현(일반외과)  
천성빈(내과)
- 간호사 : 김지은 박소영
- 방사선사 : 서원영
- 임상병리사 : 김필립
- 일반 봉사  
[간호팀] 1명 [약제팀] 덕성여대 1명  
동국대 1명 숙명여대 2명  
[목요급식봉사] 2명 [청소봉사] 6명
- 신학생 현장체험  
김희준(빅토로, 서울대교구, 01.03~05.30)  
전 호(라파엘, 의정부교구, 01.03~05.30)  
강대건(대건안드레아, 전주교구,  
02.03~04.12)

#### + 우리 병원에서 나눔한 기관·개인

- 병원 환자(2명) ●영등포 쪽방 주민
- 종로 쪽방 주민 ●토마스의 집

#### + 요셉의원 월별 환자 진료수

2024년 12월	1,476 명
2025년 1월	1,415 명

개원 이후 총 진료환자 수(2025년 1월 말 현재)

764,687 명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12~2025.01

# 필리핀요셉의원



김다술 신부의 필리핀 현지통신

## 서울 가톨릭 학생들과 요셉의원 장학생들 따뜻한 교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한 필리핀 요셉의원 장학생들과 한국 서울대교구 가톨릭학생회 회원들.

지난 2월 초 · 중순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요셉의원에서는 필리핀 요셉의원 장학생들과 한국의 가톨릭학생회 회원 30명이 함께 참여하여, 문화와 정을 나누는 특별한 교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7박 8일 동안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활동과 체험 행사를 통해 필리핀과 한국의 청소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나눔의 기쁨을 실천할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한국 참가자들은 필리핀 가난한 지역의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해 현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다.

서울교구 가톨릭 학생회 회원들은 2월 8일 새벽 도착 후 하루 간의 프로그램 준비 시간을 가진 뒤 9일 요셉의원 장학생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함으로써 본격적인 프로그램의 막이 올랐다. 서울교구 학교 사목부 박민재 미카엘 · 한승진 베드로 신부와 요셉의원의 김다술 야고보 신부가 공동으로 집전한 미사에서는 학생들이 서로의 언어로 독서와 보편지향기도를 번갈아 가며 바쳤고, 미사 후에는 친목을 다질 수 있는

다양한 게임을 통해 함께 하는 시간을 보냈다.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파이널 파티'였다. 참가자들은 요리팀, 파티팀, 레크리에이션팀으로 나누어 각자의 역할을 맡아 행사를 준비했다. 요리팀은 즐리비 치킨과 다양한 필리핀 전통 음식, 잡채와 닭갈비 같은 한식을 준비하였고, 파티팀은 요셉의원 강당에 멋진 포토존을 꾸며 참가자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요셉의원 장학생들은 한국 참가자들과 함께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도 진행했다. 풍선 놀이, 페이스페인팅, 종이접기 등 여러 가지 놀이를 통해 아동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무엇보다 파티의 중심은 단연 서로가 준비한 춤과 노래. 서울교구 가톨릭 학생회와 요셉의원 장학생들은 각자가 준비한 춤과 노래를 열정적으로 선보임으로써 분위기를 한껏 달아오르게 하였다.

이번 교류 프로그램은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 참



두 나라 학생들의 댄스 경연 모습.



복음 묵상

'동등한 관계로서 순수한 만남을 위해'

한국 친구들이 춤을 선보이기 위해 연습할 때, 우리도 필리핀 전통춤과 k-pop 댄스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우정의 선물로 식료품을 준비할 때, 우리도 손수 만든 요셉의원 기념품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동등한 관계로 시작하기를 바랐고 당당하게 손님을 환영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대교구 가톨릭 학생회 지도신부님과 과 간사님들이 필리핀 요셉의원을 방문하셨습니다. 가톨릭학생회 청소년들이 요셉의원을 방문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답사차 방문하신 것이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좋을지 깊이는 이야기가 오갔고, 결국 학생 간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방법도 가능했을 겁니다. 봉사활동이 될 수도 있고 체험 활동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류 프로그램으로 정해진 데에는 이곳 학생들과 함께 지내면서 느낀 바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곳 어린이들은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곳 아이들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 도움받아야 하는 사람, 약자라고 말입니다.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가난은 '구경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이곳 마을이 얼마나 가난한지 경험하길 원하는 순수한 마음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나오는 처지가 다른 이들을 '체험'하는 것으로 변질되기 쉽고, 특히 이곳 사람들 역시 그러한 처지를 비판하면서도 받아들여집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관계의 불균형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싶었습니다. 그 때문에 특히 같은 나이 또래인 한국 청소년들의 방문이 일

방적인 봉사가 아니라 동등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교류이길 원했습니다. 곧 경제적이나 환경적인 관점에서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 싱그러운 에너지를 가진 청소년 사이의 일반적이지만 특별한 만남이 되길 바랐습니다. 서로의 삶을 긍정하고, 서로 다른 문화적, 지리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만나 세계가 넓어지는 경험을 하길 바랐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요셉의원 장학생들이 필리핀뿐 아니라 더 넓은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사는 이도 있음을 알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때문에 우리 장학생들도 열심히 준비시켰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춤을 선보이기 위해 연습할 때, 우리도 필리핀 전통춤과 k-pop 댄스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우정의 선물로 식료품을 준비할 때, 우리도 손수 만든 요셉의원 기념품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동등한 관계로 시작하기를 바랐고 당당하게 손님을 환영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올해 2월 중순 진행된 이번 양국 가톨릭 청소년들의 만남이 앞으로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알 것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에서 시작하기 위해 요셉의원 장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또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만나는 사람들 앞에 당당해질 수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생각할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



김다솔

필리핀요셉의원 원장신부

가자들이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조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진정한 인간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했다. 필리핀과 한국의 청소년들이 함께한 이번 경험은 두 나라 간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참가자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이번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필리핀 요셉의원과 한국 가톨릭학생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다. +

## 가톨릭의료협회, 기증받은 안과 기기 보내와

한국 가톨릭의료협회는 지난 1월 안과기기 2종을 필리핀 요셉의원에 전달했다. 기증받은 기기는 시야 분석기와 각막 지형 측정기로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안과 진료에 이용할 예정이다. 종전의 요셉의원 안과 진료는, 안과 의사가 휴대 가능한 검안경으로만 간단한 검사가



기증받은 시야 분석기와 각막 지형 측정기.

이루어지고, 정밀 검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처 안과로 검사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받아 보아야만 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일정 시간과 비용이 소모돼 환자가 빠른 처치를 받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안과기기 기증은 환자의 수고를 덜고, 의료진의 편의를 한층 높이게 됐다.

시야 분석기는 시야 검사를 통해 녹내장을 조기에 발견하

는데 도움을 주며 망막 질환이나 시신경 손상을 검사하는 데도 주요하게 이용된다. 또한 뇌졸중이나 뇌종양 등 신경학적 장애가 시야에 미치는 영향을 검사할 수 있다. 각막 지형 측정기를 통해서 는 난시나 각막염, 원추각막 등 각막에 이상이 생기는 질병을 검사할 수 있다.

요셉의원 진료 봉사의 루이 리(Louie Lee) 박사는 “시야 분석기와 각막 지형 측정기 도입으로 빠른 1차 진료가 가능해지고, 환자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새로운 기기 도입으로 지역 사회의 안과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꾸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 ‘필리핀 심장의 달’과 ‘구강 건강의 달’ 행사 마닐라 센트럴대, 요셉의원에서 건강 강좌 개최

마닐라 센트럴대학교(MCU)는 필리핀 심장의 달(Philippine Heart Month)과 구강 건강의 달(Oral Health Month)을 맞아 2025년 2월 12일 오전 요셉의원에서 지역 사회를 위한 건강 강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강좌는 심장과 치아 건강의 중요성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올바른 건강



마닐라 센트럴대 의료팀이 건강강좌를 진행하는 모습.

관리 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진행팀은 심장 건강 및 구강 관리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장려하고, 예방적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MCU 커뮤니티 관계부서가 주관하고, 단과대 별로 주제를 나눠 진행했다. 치과대학은 구강 건강,



의과대 심장 건강, 간호대 혈압 측정, 약대 의료 지원을 위한 의약품 제공을 맡았다.

MCU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건강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학 관계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3월에는 요셉의원에서 MCU 주관으로 무료 청력 검진이 실시된다. MCU 병원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는 필리핀 이비인후과학회와 협력하여 ‘세계 청력의 날’을 기념하는 무료 청력 검진 행사를 2025년 3월 14일 요셉의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청력 문제를 조기에 발견



마닐라 센트럴대 약대생들이 의약품 지원을 위해 환자를 인터뷰하고 있다.

하고,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검진은 MCU 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전공의, 인턴으로 구성된 의료진이 진행하며, 조나 미넷 리곤(Jona

Minette Ligon) 박사의 감독 아래 체계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MCU 병원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 과장인 키슬리 브라이언 페레스(Keithley Bryan Perez) 박사는 “청력 손실의 조기 발견은 공공 보건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료 청력 검진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청력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 2024년 12월~2025년 1월 신규 후원 회원**

- 강도희 ● 강윤희 ● 강춘식 ● 강현숙 ● 강혜영
- 구은옥 ● 권은경 ● 권재현 ● 김경윤 ● 김경현 ● 김경희
- 김규수 ● 김남균 ● 김미정 ● 김설인 ● 김성훈 ● 김수자
- 김순식 ● 김순연 ● 김순희 ● 김신애 ● 김영연 ● 김옥순
- 김옥심 ● 김은수 ● 김정숙 ● 김정일 ● 김창식 ● 김춘지
- 김향수 ● 김혜자 ● 김호선 ● 김홍석 ● 김화옥 ● 김희송
- 남기욱 ● 남순강 ● 도경동 ● 류선이 ● 류세열 ● 마광현
- 박봉순 ● 박영미 ● 박윤민 ● 박은선 ● 박인숙 ● 박정자
- 박준범 ● 박찬국 ● 박창경 ● 박화옥 ● 배인구 ● 빈옥주
- 서정완 ● 손선주 ● 손성일 ● 손영순 ● 신옥순 ● 신정애
- 양지영 ● 양희주 ● 여영주 ● 연제순 ● 염명숙 ● 원숙경
- 유동우 ● 유민서 ● 유병학 ● 유영자 ● 유재홍 ● 유창용
- 윤순자 ● 윤영국 ● 윤정희 ● 은빛나 ● 이경자 ● 이경희
- 이규성 ● 이다현 ● 이동윤 ● 이명순 ● 이미선 ● 이미숙
- 이민지 ● 이삼권 ● 이상면 ● 이상범 ● 이상용 ● 이선이
- 이성희 ● 이세실리아 ● 이순점 ● 이옥희 ● 이재순
- 이재영 ● 이종민 ● 이철기 ● 이청자 ● 이한명 ● 이현숙
- 이효진 ● 임순영 ● 임진규 ● 장단아 ● 장복례 ● 장지연
- 정지현 ● 조양순 ● 조정자 ● 조현숙 ● 차은주 ● 채경수
- 천흥기 ● 최미란 ● 최은교 ● 최재화 ● 최정자 ● 최흥열
- 한성준 ● 한정숙 ● 한정윤 ● 허홍식 ● 홍성호 ● 홍영순
- 홍유진 ● 황계익 ● 황호건 ● 익 명

**+ 2024년 12월~2025년 1월 신규 후원 단체**

- 경찰사목위원회 ● 대구가톨릭치과 의사 신우회

**+ 2024년 12월~2025년 1월 진료 및 급식 통계**

- 진료 1,185명 ● 급식 543명

**+ 개원 이후 총 진료 및 급식 인원 (2025년 1월 현재)**

- 진료 108,930명 ● 급식 494,653명

**+ 필리핀요셉의원 후원 계좌**

☎ 070-4688-3412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거나 홈페이지(<http://philisclinic.org>)를 통해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364301-04-150303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우리은행	1005-201-940450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미사  
안내**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17:10 요셉의원 내 경당  
미사지향 : 고 최영식 마티아 Fr. 및  
필리핀요셉의원 후원자들을 위하여



2024.12~2025.01

# 홈씨

국제성경시도직후원회 소식지



국제성경시도직후원회(국성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난 때문에 읽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의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성경 한 권은 앞날을 비춰주는 빛이고 희망입니다.

## 흥근표 지도신부 강론



주님께서 99마리 양을 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나신 것은 그 한 마리 양을 편애해서가 아니라, 남은 99마리의 양을 위해서도 소외된 한 마리 양을 구원하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몸 중의 작은 한 부분이라도 잘못되면 온몸이 아프고 제 구실을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주위 이웃들을 보살피고 돕는 일은 바로 성당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마찬가지로, 먼 나라의 가난한 형제들에게 성경을 보내고자 하는 국성회의 뜻 역시 자애로우신 주님 뜻에 부합하는 일일 것입니다.

(2024년 12월 10일 (화) 오전 11시 요셉의원 3층 경당 국성회 후원회 미사 강론에서)



## [선교 현장에서 온 편지] 브라질 아마존 밀림 지역에서 보내온 성경 지원 요청

### “아마존 오지에서도 하나님 말씀 가르칩니다”

안녕하세요, 국성회 후원회원 여러분. 저는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도회 소속의 노재복 베로니카 수녀입니다. 2017년에 파라과이에서 선교 중이었을 때 아미칼(AMICAL : 중남미 한국 가톨릭 선교사 모임)을 계기로 국성회를 알게 되어 성경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국성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수도회는 선교 일을 하는 자매들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선교지도 7개국에서 1개국으로 감소하였



어린이들을 위해 선교 활동을 벌이는 어린이 전교회 회원들이 어린이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습니다. 저는 현재 콜롬비아, 페루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브라질 북부 아마조나스 주에서 선교 중입니다.

주 이름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이 지역은 아마존 강



배로 아마존 지역을 이동 중인 모습.

열대우림이고 주 수입원은 어업입니다. 주식은 생선, 삶아서 먹는 바나나와 만디오키라는 뿌리 열매입니다. 아마존 강에는 다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강가 소도시에서 주도이자 아마존 지역 최대 도시 마나우스로 이동하려면 꼭 배로 최소 하루 이상 최대 며칠을 이동해야 합니다. 대학과 기술교육학교는 거의 마나우스에만 몰려 있어 지방 주민들은 고등교육을 받기 어렵고, 콜롬비아 마약 밀거래는 이곳의 젊은이들에게 크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신교 신자들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작은 도시 마랑(Maraá)에도 '여호와와 의 증인'과 한국 개신교가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가톨릭 성경을 통한 신자들의 교리교육이 시급함을 절감합니다. 교육을 통하여 자기 신앙의 은총을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자기 존재의 의미와 삶의 의미를 마주하며 나아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이들과 함께



사진 위는 노재복 수녀가 거주하는 아마존아스주 마리앙 시의 시청. 아래는 공소를 방문해 미사를 드린 후 사제와 함께 한 참석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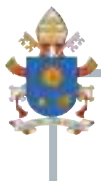
하고자 합니다.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포르투갈어 큰글씨 성경 100권, 일반 성경 200권은 교구 교리교사 및 단체장 교육과 공소 신자, 청년 모임, 어린이 선교회, 교도소, 알코올 중독자와 마약 중독자 모임 등에 귀중하게 쓰일 것입니다. 후원을 받을 수 있으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6일 브라질 아마존 지역에서 노재복 수녀 드림

☞ 2024년 12월 20일 노재복 수녀에게 브라질 아마존 지역 신자들을 위한 포르투갈어 큰글씨 성경 100권(1,000유로), 일반 성경 200권(1,200유로), 성경 운송비(300유로)를 후원하였습니다(2,500유로=3,795,500원).

☞ 2017년 10월 20일 노재복 수녀에게 파라과이 카아사파 준교구 신자들을 위한 스페인어 성경 300권을 후원하였습니다.(\$5,300=6,047,581원).



[가톨릭 상식]



## 브라질 가톨릭 교회의 역사와 현황

### 식민지 시대(1500-1822)

브라질 가톨릭 교회의 역사는 1500년 포르투갈의 식민지화에서부터 시작된다. 선교를 위해 수도회 중에서는 최초로 브라질에 진출한 예수회는 초기 식민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원주민을 가톨릭으로 개종시키기 위해

원주민의 문화, 특히 언어를 습득했고, 많은 수의 원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감화되어 세례를 받았다.

브라질 예수회는 원주민을 노예로 만들고 싶어하는 다른 식민지 주민과 빈번히 다투었다. 예수회의 활동은 많은 원주민을 해방시키는 데 기여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들

## 2024년 국성회 성경 지원 현황

일자	지원국가	요청자	대상	품명	금액(원)
24.02.23	남아프리카 공화국	양은오 수녀 (성바로딸수녀회)	성 요한비안네 신학교 학생들과 도서관	여러 종류의 신앙서적	8,250,000
24.03.25	페루	박정호 수녀 (영원한도움의 성모수도회)	중남미 청년성서모임 빈민 청년들	성경읽기 교재, 마르코 교재 500권, 축복받은 성경읽기 교재 500세트 (세트당 2권)	5,250,000
24.05.24	한국	새빛공동체	새빛공동체 입주자	성경 10권, 성가집 35권	832,500
24.05.24	한국	작은자매관상선교회	기도모임, 성경나눔	성경 15권	540,000
24.06.18	볼리비아	김영미 수녀 (성가소비녀회)	현지 신자	스페인어 성경 200권	6,377,000
24.11.29	부룬디	부룬디주교회의	현지 신자	키룬디어 성경 1만권 인쇄제작 보조비	62,599,949
24.12.20	브라질	노재복 수녀 (마리아의전교자 프란치스코회)	아마존 지역 현지 신자	포르투갈어 성경 200권, 큰글씨성경 100권, 운송비	3,795,500
계					87,644,949

의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교란하고, 의도치 않게 전염병 확산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 브라질 제국 시대(1822-1889)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아메리카의 식민지들은 차례차례 독립을 맞이했고 브라질의 가톨릭 성직자들은 독립을 지지하되 공화정에는 반대했다. 1822년 브라질의 독립은 당시 포르투갈 왕자가 브라질의 황제 페드루 1세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스페인령 식민지들보다 독립이 상대적으로 순조롭고 내부 분열도 적었다. 제국법에는 신앙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었으나, 가톨릭이 아닌 종교는 종교적 건물을 세울 수 없어서 사실상 가톨릭이 브라질의 유일한 국가종교였다.

### 제1공화국 시대에서 현대까지 (1889~)

1888년 페드루 2세가 노예제 완전 폐지를 선언하면서 농장주들과 자본가들의 큰 불만을 불러일으켰고, 이들 중 상당수는 공화주의자로 전향했다. 결국 이듬해인 1889년

공화국은 식민지 시대부터 제2의 국가 역할을 하며 권력을 쌓은 교회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20세기 전반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의 가톨릭 국가로부터 대량의 이민을 받았고, 이와 함께 비가톨릭 지역 이민자들의 가톨릭 개종자 수도 늘어나 가톨릭 신자 수가 급증하게 되었다. 그 결과 현대의 브라질은 가장 많은 수의 가톨릭 신자를 보유한 나라로 꼽힌다. 2022년 기준 브라질의 가톨릭 신자 비율은 총 인구의 50%(약 1억 6백만)를 차지한다(가톨릭 50%, 개신교 31%, 무교 11%, 기타 8%).+



아마존강 유역의 광대한 밀림

### + 2024년 국제성경사도지후원회 결산보고

2024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계정과목	수입	지출
전기이월금	521,206,980	
후원금	101,610,000	
이자수입	19,216,434	
집수입	2,134,430	
급여		10,200,000
복리후생비		1,151,540
수도광열비		311,420
통신비		1,112,830
자금수수료		1,550,840
소모품비		2,192,930
성경지원사업비		87,644,949
이자소득세		2,956,170
차기이월금		537,047,165
합계	644,167,844	644,167,844

에 쿠데타가 일어나 제정이 폐지되고 제1공화국 시대가 열렸다. 1891년 헌법 제정에서 국가와 종교를 분리해 가톨릭은 브라질의 국교 지위를 잃었다. 제1

## 국성회 | 후원 현황 및 후원계좌

### + 후원해 주신 분들 - 일반 (2024년 12월 ~ 2025년 1월)

- 강석철 ● 강은영 ● 강정아 ● 강화정 ● 고도원 ● 고동현 ● 고현수 ● 고현주 ● 곽순용 ● 곽혜숙 ● 곽효민 ● 구경모 ● 김경준 ● 김경희 ● 김광자 ● 김금재 ● 김기연 ● 김대곤 ● 김덕순 ● 김동화 ● 김명숙 ● 김명신 ● 김명희 ● 김미현 ● 김범준 ● 김병희 ● 김상숙 ● 김석주



- 김선옥 ● 김성권 ● 김성중 ● 김수미 ● 김수현 ● 김여진 ● 김영추 ● 김영환 ● 김윤순 ● 김은숙 ● 김정연 ● 김정임 ● 김정화 ● 김진숙
- 김진우 ● 김태규 ● 김태남 ● 김태성 ● 김태희 ● 김해숙 ● 김현경 ● 김현숙 ● 김현준 ● 김현호 ● 김형주 ● 김혜숙 ● 김효섭 ● 김희수
- 나삼균 ● 도성록 ● 류연자 ● 류지한 ● 류혜선 ● 문순자 ● 박금애 ● 박병윤 ● 박성하 ● 박세희 ● 박소향 ● 박수진 ● 박언빈 ● 박재우
- 박지영 ● 박창희 ● 박춘옥 ● 박향순 ● 박혜숙 ● 박화영 ● 박효종 ● 배광익 ● 배보윤 ● 배소영 ● 배창희 ● 백영희 ● 사공일 ● 서현동
- 서효리 ● 서희자 ● 성정인 ● 성효인 ● 손소영 ● 손정애 ● 손필숙 ● 손현채 ● 송미경 ● 송보영 ● 송재욱 ● 신해경 ● 양기라 ● 양영실
- 양창호 ● 엄옥진 ● 오명순 ● 오세형 ● 오소연 ● 오승웅 ● 오영신 ● 위원량 ● 유영희 ● 윤영순 ● 윤영찬 ● 윤용식 ● 윤종구 ● 윤창현
- 이강득 ● 이강림 ● 이건창 ● 이규성 ● 이금희 ● 이미순 ● 이미용 ● 이보경 ● 이상현 ● 이석재 ● 이승현 ● 이영희 ● 이용순 ● 이용애
- 이용우 ● 이원석 ● 이일호 ● 이장순 ● 이재림 ● 이재익 ● 이정희 ● 이종대 ● 이종상 ● 이주현 ● 이준호 ● 이중환 ● 이지윤 ● 이진수
- 이학천 ● 이향희 ● 이현옥 ● 이현창 ● 이현자 ● 이혜순 ● 이혜연 ● 이희우 ● 임선영 ● 임순태 ● 임옥란 ● 임진수 ● 임태남 ● 장민정
- 장선화 ● 장수진 ● 장이태 ● 전대영 ● 전명희 ● 전성인 ● 전소연 ● 전 숙 ● 전유민 ● 정수자 ● 정영길 ● 정영미 ● 정은주 ● 정재숙
- 정진영 ● 조경연 ● 조덕순 ● 조무건 ● 조성미 ● 조소연 ● 조주연 ● 조하영 ● 조현순 ● 주현수 ● 주희숙 ● 지태근 ● 진수은 ● 최경의
- 최권욱 ● 최두혁 ● 최명옥 ● 최영연 ● 최영자 ● 최종숙 ● 하금태 ● 한나진 ● 허 근 ● 허봉희 ● 허순덕 ● 홍성실 ● 홍지원 ● 황세희
- 황영희 ● 황태운 ● 황현지 ● 진석실업

### + 후원해 주신 분들 - 사제 및 단체(2024년 12월 ~ 2025년 1월)

- 김경식 ● 김원호 ● 박우준 ● 서상범 ● 오창선 ● 유경춘 ● 이계호 ● 이문주 ● 임상무 ● 정순택 ● 조인기 ● 최광희 ● 최명근 ● 최정훈
- 한정화 ● 흥근표 ● 가톨릭여성연합회 ● 양양성글라리아수도원 ● 익명희망자

### + 신규 후원회원 - 사제 및 단체(2024년 12월 ~ 2025년 1월)

- 막달레나공동체

### + 국성회 후원 방법

#### 1. CMS 신청

- 국성회 사무실(02-2676-9981)에 연락하셔서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후원신청을 합니다. 신청자의 성함,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신청자 본인의 은행명과 계좌번호, 월 출금액, 출금을 원하시는 날짜(1일/10일/25일)가 필요합니다.
- 신청자와 은행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의 성함,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가 필요합니다.

#### 2. 은행 송금

-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인터넷 뱅킹 송금/모바일 뱅킹 송금/은행창구 송금
- 자동 계좌이체의 경우 신분증, 도장, 통장을 지참하고 은행에 가서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뒤에 국성회 사무실 전화번호(02-2676-9981) 혹은 이메일(overseas-bible@hanmail.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5-801-003937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국민은행	364301-04-106412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 2024년 12월 ~ 2025년 1월 후원금 내역 : 23,756,000 원

2025년 3월 후원회 미사 알림



**일시** : 2025년 3월 11일 (화) 오전 11시  
**장소** : 요셉의원 3층 경당(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100길 6)  
**교통** :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6번 출구에서 문래동 쪽 200m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 마태오 18,33 |



노숙자와 행려자, 알콜의존증 환자, 외국인근로자와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도와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병원은 요셉나눔재단법인의 자선 의료기관으로서 여러분의 정성 어린  
후원과 봉사에 힘입어 37년 간 국내외의 가난한 이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베풀어주시는 사랑의 손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 요셉의원 후원 방법

### 1. 요셉의원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요셉의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의 '후원 신청' 혹은 '후원 안내' 메뉴의 '후원 신청'을 클릭해 들어간 뒤 왼쪽의 '정기후원(CMS)' 버튼을 누른 다음 후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기존 일반 자동이체 회원 → CMS 전환 희망자 포함).

### 2. 요셉의원에 전화로 신청하기

요셉의원 후원관리팀에 전화(02-2637-7258)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후원신청을 합니다(녹취를 통한 CMS 자동이체 신청).

### 3. 은행에 신청하기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시거나 신분증과 도장,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신청을 하신 후에는 전화(02-2637-7258) 또는 donation@josephclinic.org 로 입금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5-604-557810	요셉나눔재단법인
국민은행	364301-04-236621	요셉나눔재단법인

■ 위의 계좌 이외에 기존에 납입하고 계신 요셉의원 계좌도 유효합니다.

## 요셉의원 환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 목욕서비스

시간 매일 오후 1~3시 남성  
3~5시 여성  
장소 1층 목욕실



### 이·미용서비스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3~5시  
장소 1층 로비



### 식사 나눔 (목요일)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2~4시  
장소 1층 식당



### 웃 나눔

시간 요정에 따라 수시로  
장소 1층 현관



### 법률상담

상담 예약 문의 전화 070-4688-3413  
(오후 1시~5시 전화 연결 가능)



### 영화포럼

별도 공지 때까지 잠시 중단



### 음악치료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3시 30분  
장소 4층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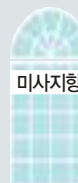


### 도서관 운영

시간 월, 화, 수, 금요일 오후 1시~5시  
(화요일은 4시까지)

미사  
안내

요셉의원 3층 경당에서는  
월~금요일 미사가 봉헌됩니다.



월요일 : 후원자를 위하여  
화요일 : 환자들을 위하여  
미사지향  
목요일 :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금요일 : 세상을 떠난 선우경식 원장과  
후원자, 환자, 봉사자의 영혼을 위하여  
+ 봉사자와 환우 분들을 환영합니다.

“소중한 봉사 경험과 진료받은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요셉의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진료받으며 느꼈던 감동적인 스토리를 모집합니다.  
의료인, 환자, 보호자, 일반 봉사자 등 요셉의원과 관련된 따뜻한 경험담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 요셉의원 편집부 E-mail : info@josephclinic.org

